

우리가 가꾸어야 할 곳 “레드리본센터”

김현진 *KAPF(한국감염인협회) 대표

어느덧 가을…….

몇 해 전 가을은 잠시나마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계절이었다. 살포시 부는 바람에도 추위와 외로움에 떨어야했고 떨어지는 낙엽에도 죽음을 생각했으며 삶의 희망도 가차도 느끼지 못하였다. 하지만 올해의 가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부는 바람은 우리를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채찍이요, 지는 낙엽은 우리들의 발전에 밑거름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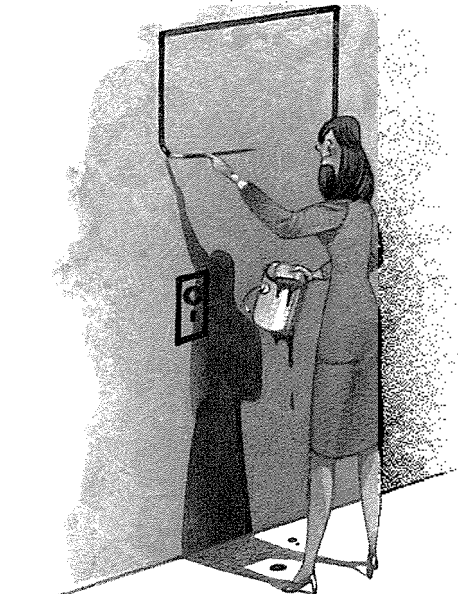
오곡이 무르익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듯 한 계절의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본다.

소작! 지금 세대에게는 잊혀진 단어일지 모르지만 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남의 땅을 빌려 일 년 내내 고생을 하며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가난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온갖 정성과 사랑을 주며 희생한 것은 현재의 자기 자신보다는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새 감염인으로 살아온 지도 벌써 30개월이 넘어선다. 군대 같으면 말년 병장으로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세울 시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발병한지 20여년.

그동안 많은 감염인들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을 것이다.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이라는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풀 한포기 자랄 수 없는 황무지를 빌려 사력을 다해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희망보다는 차가운 시선과 편



견이라는 현실에 울분을 토했을 것이다.

레드리본센터. 이곳은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한 것도, 우리에게 빌려준 것도 아닌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곳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씨를 뿌리며 가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그래왔듯이 자활이라는 명분 하에 인권을 무시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 자활, 복지, 인권 이것들은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 할 부분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를 떠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일어나 움직일 때이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과거에 힘써왔던 분들에게는 떳떳한, 지금의 우리 아닌 미래의 우리를 위해선 당당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닌 물 밑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레드리본센터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파이팅!